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3 01 제168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임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주님공헌대축일(1월 8일) 동방 박사들의 방문 (마태21-12)



빛을 찾는 사람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1. 5.)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87번 “동방의 세 박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빛이신 주님, 저희를 찾아오소서.
-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의 경배를 받으옵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



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마태 2,2)

나는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마태 2,8)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헛된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일보다 사진을 찍는 일이 더 중요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남기

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진이 잘 나오는 음식점, 카페,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있어보이는 운동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하고 참된 것은 허세를 부리며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참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 가운데 크고 높으신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도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참되고 진실한 것을 찾고 좇으면 자연스럽게 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87번 “동방의 세 박사” 5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2주일(1월 15일) 하느님의 어린양 (요한 1,29-34)



세상 안에 머무심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요한 1,32)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심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1. 19.)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 가운데 머무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9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요한 1,31)

나는 주님께서 알려지시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요한 1,34)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고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느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하루를 지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무엇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도 즐겨 보고 듣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곤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자주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거룩한 신비를 많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하느님에 관한 증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자주 듣고 봄으로써 우리도 요한처럼 거룩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옥포본당 소공동체

옥포본당 3구역 아주2반 반장 장효심(루피나)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거제 옥포본당은 대우조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조선소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주민들이 아침 일찍 자전거로 출근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소개할 소공동체는 6구역 중 3구역에 속하는 아주2반입니다. 본당 내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온 지 얼마되지 않아 참석하게 된 아주2반 소공동체 모임의 참여율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입니다.

참여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 행사나 교육에 임하는 반원들의 자세가 긍정적인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진행된 신부님의 특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져 많이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 받은 좋은 메시지는 소공동체 회합에서 빛을 발합니다. 말씀나누기를 할 때

면 서로의 마음이 울곤은 신앙으로 채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친목을 바탕으로 각 가정의 경사나 어려움을 같이하며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본당의 각 분과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정신입니다. 아주2반 반원들은 각기 소속된 분과에서도 저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진 소공동체 모임은 항상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한집 한집 돌아가며 간단한 다과로 진행함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미리와 답소로 꽃을 피웁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비신자의 적극적인 전교활동에는 미흡함이 있고, 전입신자 돌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맛별이 부부가 많다보니 현실적인 대안을 대처할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반원들의 단합된 힘을 성모님께 의탁하여 한걸음 한걸음 부족함을 메우며 항상 따스함과 사랑이 넘치는 아주2반 화이팅!!



「성사의 인호는 무엇인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때에 영적‘인장’ 곧 인호가 주어진다. 인호는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다. 이 인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각기 다른 신분과 역할에 따라 교회의 지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봉사에 헌신하게 된다. 인호는 결코 소멸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새겨 주는 성사들은 평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용어

인호印號

쉽게 말해 도장 또는 인장이다. 교리서는 인호를 여러 면에서 설명한다. ① 우선 인호는 ‘하느님의 것’이라는 표로서,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다.(1121항). ② 인호는 성령의 활동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표시다(1274항).

「성사와 신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예식의 요소들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교회의 성사를 거행하면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신앙을 고백한다. 여기서부터 “기도의 법칙은 신앙의 법칙” 곧 “교회는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는 옛 격언이 생긴 것이다.

해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라고 한다”(전례 현장 59항).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용어

기도의 법칙은 신앙의 법칙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믿으며, 믿는 대로 기도한다. 올바르게 믿으면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면 올바르게 믿는 것이다. 또는 깊은 기도는 깊은 신앙에서 나오고 깊은 신앙은 깊은 기도에서 나온다. “교회 또한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전례는 살아 있는 성전을 구성한다”(1124항). 성사 예식에서 표현되는 신앙과 기도는 이처럼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